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33.1만 km ²	G D P	2,030억 달러 (2016년)
인구	94.40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2,149달러 (2016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 (VND)
대외정책	미국·중국과 전략적 균형외교	환율(달러당)	22,310.60 (2016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개혁,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ASEAN, RCEP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한편, 미국과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영유권 분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소비 및 투자증가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추정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여 2012~13년중 소비 및 투자 위축, 국영기업과 은행부문의 부실문제 심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5%대에 그쳤음.
- 2014~15년에 성장률은 전자 및 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 심리 회복,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로 6%대로 회복됨.
- 2016년에는 상반기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지역(베트남 쌀 생산량의 50% 차지) 가뭄에 따른 농업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평균 12.4%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민간소비 진작,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수혜 전망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89('13년) → 92('14년) → 118('15년) → 120('16년^o)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안정세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 가격, 동화(Dong)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2012~14년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며 2014년 4%대로 낮아짐.
- 2015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으로 물가가 0.6%까지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의료보조금 축소, 학교수업료 인상 및 연말 베트남 동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원유생산 등 세수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증가하여 2013년~2015년 4.4%~5.0%를 기록함. 한편, 2016년 공공부채 이자지급* 등 재정수지 적자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5%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공공부채 이자지급 규모가 정부세입의 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5.4	6.0	6.7	6.0	6.6
소비자물가상승률	6.6	4.1	0.6	2.6	3.4
재정수지 / GDP	-5.0	-4.4	-4.6	-4.5	-4.3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5~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0개국 중 76위로, 도로(93위), 전기공급(87위), 항만(76위), 항공(75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관련 인프라의 질이 열악한 편으로 운송비 부담이 높음.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처리 비효율 존재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에서 베트남은 33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6개국 중 인도(79위), 중국(79위), 인도네시아(90위), 필리핀(101위)보다 낮은 113위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강화하는 반부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직자의 경우 최초 임명 또는 선출 시 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재선임, 2억 동(8,863 달러 상당) 이상 재산증가 시에도 변동내용을 공개하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 보고서('16.10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82위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사업청산 관련 절차가 많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9월 공기업 포함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가 원칙적으로 철폐되고, 국채 및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됨.
- 베트남 정부는 2017년 1월 최대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인 국영 전력회사 페트로베트남파워(Petrovietnam Power)의 7억 달러 규모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 * '13년 7월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을 전담하는 베트남자산관리공사(VAMC)를 설립
-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 부실화 이후, VAMC의 자본금 부족 등으로 은행권 건전성 제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Fitch에 의하면 베트남 8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3년 말 3.1%에서 2015년 말 2.4%로 하락한 이후, 2016년 말 2.6%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나, NPL 규모는 과소보고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요주의대출(SML)과 VAMC에 매각된 NPL을 포함할 경우 문제성여신비율은 2016년에도 9%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요 국영은행(산업무역은행(Vietinbank), 농업농촌개발은행(Agribank), 대외무역은행(Vietcombank), 투자개발은행(BIDV)) 및 주요 민영은행(ACB, Techcombank, Sacombank, MB)

- 베트남의 GDP 대비 여신비율은 2015년 말 기준 110.5%로 신흥시장 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편임.

- 국영은행의 자본적정성비율(CAR)은 2016년 6월 말 기준 9.3%로 민영은행의 12.1%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은행산업 총자산수익률(ROA)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0.6% 대의 저조한 수준으로 추정됨.

- 한편, 은행의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011년 말 19%에서 2015년 말 15%로 축소된 반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소매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36%로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산의 질(quality) 관련 위험은 감소함.

나. 성장 잠재력

□ 꾸준한 수출지향적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수출 지속 확대

○ FDI 유입은 2012~2016년 중 평균 101억 달러 수준이며 2016년 누계 기준으로 1,148억 달러를 기록함.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대비 FDI 순유입은 128개 국가 중 29위로 높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기업이 2016년 베트남 총수출액의 71.5%를 차지하는 등 수출 증가는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의 70.5%가 휴대전화, 전기, 전자, 섬유 등 제조업이며, 또한 제조업이 수출의 75%를 차지함.

- 2013년~2020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1,700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 도로, 철도, 수처리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됨.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

- 2015년 말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수준으로 아시아 상위권이며, 15세 미만 인구 비중도 23% 수준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말 약 55백만 명 수준으로 추정됨.
-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글로벌혁신지수(GII)에 의하면 베트남은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128개 국가 중 21위로 평가되는 등 저임 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한편, 베트남은 낮은 노동생산성, 관리자급 전문인력과 숙련노동력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세 지속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 4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총인구의 약 50%가 30세 미만이고,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약 3천만 명에 달하며,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40대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도시에 구매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대도시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장기평균 경제성장률과 장기평균 1인당 GDP증가율이 각각 6.4%와 5.3%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수준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공공부채 증가세에 대한 정부 대응이 다소 미흡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누적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IMF는 2016년 6월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12년 47.9%에서 2015년 58.3%까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약 62.1% 수준으로 추정함.
- 공공부채 중 외채는 GDP의 24~25%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채무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임금을 제외한 국영기업 일반지출의 10% 감축 등 비용절감을 향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임.
- 한편,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예정임.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GDP의 65%),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등으로 공공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추진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3월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을 국회에 제출, 동년 4월 비준을 받아 확정함.
- 동계획은 ①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 시민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 ④ 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 국가안전 보장, ⑥ 외교 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계획의 주요 목표는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도시화비율 38~40%,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의료보험가입 인구비율 80% 등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환율정책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14%('11.1월)→10%('12.1월)→7%('13.5월)→6.5%('14.3월 ~ '17.1월 현재)

- SBV는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절하하였으며, 2015년에도 세 차례(1월, 5월, 8월)에 걸쳐 총 3% 절하를 단행하였고 2016년 1월에도 달러당 2만 1,896동으로 0.03% 절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15년 8월에는 일일 환율밴드를 ±1%에서 ±3%로 확대함.

3. 대외거래

□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세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득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세에 있음.
- 2015년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소득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0.5%로 급감함.
- 2016년에는 휴대전화 등 수출 확대와 자본재 등 수입 증가세 둔화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9.1억 달러) 대비 4.9억 달러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0.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총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증가율은 둔화

- 총수출은 GDP 대비 2012년 80% 수준에서 2016년 90%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출증가율은 2012~2014년 두자리수에서 2015~2016년 한자리수로 둔화됨.

- 총수출증가율(%): 17.4('12년)→14.8('13년)→12.9('14년)→7.6('15년)→5.3('16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6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베트남의 수혜 전망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며 외환보유액이 344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2개월 내외의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단기외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외환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15년 말 47.82%에서 2016년 말 39.34%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총외채 비율 및 D.S.R. 모두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2년 이후 38~3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도 82% 내외 수준으로 외채구조가 양호함. 또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증가세이나 2016년 4.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7,745	9,359	906	1,393	-1,032
경 상 수 지 / GDP	4.5	5.0	0.5	0.7	-0.5
상 품 수 지	8,713	12,126	7,396	9,050	8,110
수 출	132,032	150,217	162,112	170,700	195,603
수 입	123,319	138,091	154,716	161,650	187,493
외 환 보 유 액	25,894	34,189	28,250	34,422	39,958
총 외 채 잔 액	65,491	71,890	72,976	79,474	85,728
총외채잔액 / GDP	38.4	38.7	38.1	39.2	40.0
D S R ^{주)}	3.9	4.3	4.6	4.5	4.5

주: 2013~15년 수치 출처는 OECD, 2016~17년 출처는 EIU.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6년 1월 제12차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서기장 유임 및 여타 지도부 내정후 5월 국회가 지도부를 공식 교체함.
 - 당서기장은 온건 중도파인 응우옌 푸 쑹이 유임되었으며,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쩌 다이 핑이 선출되었고, 총리는 개혁파인 응우옌 쑤언 폭이 선출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20% 소득격차는 각각 1998년 0.35, 5.5배에서 2010년 0.43, 8.3배로 확대된 이후, 2014년 0.38, 6.8배를 기록함.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3.5%로, 도시 지역은 3.8%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18.6%로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의 관계는 인권문제 제외 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미국과는 1995년 관계 정상화 이후 2001년 12월 무역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함.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군사정책’ 및 ‘군사협력’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7월 정상회담 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

- 2015년 기준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2016년 5월 미국의 대베트남 무기수출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베트남은 113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계약을 체결함.

- 다만, 미국이 정치범·종교인 억압, 언론자유 침해 등 베트남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양국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중 관계 악화 가능성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나,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음. 특히, 2009년 중국과의 육상

국경선은 확정했으나 해상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 분쟁지역: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 중국이 2014년 5월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됨. 더욱이, 2015년 5월 중국 해군선박이 베트남 국영석유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반증정서가 더욱 확대됨.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2016년 8월 남중국해 Spratly 군도 내 5개 기지에 이동식로켓발사대를 배치함.

□ ASEAN, RCEP 참여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자세 견지

- 미국의 탈퇴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무산 가능성 증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SEAN* 경제공동체(AEC)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경제통합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 총 10개국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차관 중심의 안정적인 외채구조 유지

- 중장기 차관이 총외채의 약 82%로 외채구조가 양호함. 또한, 거시경제 안정화,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2014년 11월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함.

□ **교역규모 증가 추세이며, 무역수지 흑자 지속**

- 대 베트남 교역규모는 2015년 376억 달러에서 2016년 45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무역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됨.
- 한국·베트남 FTA가 2015년 12월 발효되었는 바, 향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22,333	27,771	32,651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 입	7,989	9,805	12,495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발
교역규모	30,322	37,576	45,14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9월말 기준 4,561건, 146억 달러(누계기준)

- 베트남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4대 투자대상국이며 업종별로는 의복 및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되고 있음.

V. 종합의견

- 전자·섬유산업 등 제조업 수출 호조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15년 성장률이 6%대로 회복되었음. 2016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및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에 이어 6%대의 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2016년 의료보조금 축소,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6%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4.5% 내외의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나 소득수지 적자확대 등으로 흑자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6년에는 수출확대 및 수입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반중 시위가 발생하는 등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외채의 약 82%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4.5%~4.6%로 낮은 수준임.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어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5-5704)
E-mail: avik@koreaexim.go.kr